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형제적 일치에 이르게 한다.

(생활규칙 24)



오늘 2025 년 11 월 23 일 15 시 15 분(현지시각)

콜롬비아- 보고타의 심장학 연구소에서

우리 카르멘 두케 켈라르 수녀님이

(Sr CARMEN DUQUE CUELLAR)

79 세 (수도생활 54 년)로 지상의 삶을 마치셨습니다.

온 누리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축일에, 아버지께서 우리 카르멘수녀님을 그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시편 저자의 이 말씀은 이 빠스또렐라의 기쁘고 신실한, 뿌리깊은 따름의 여정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 가자!*” 할때, 나는 몹시 기뻐노라. 예루살렘아, 네 성문에, 우리 발이 이미 서 있노라.

카르멘은 1946 년 2 월 10 일 콜롬비아 레브리하에서 태어났으며, 1946 년 6 월 27 일 레브리하 본당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녀는 1965 년 5 월 29 일 쿠쿠타 -성 요셉 대성당(콜롬비아)으로 입회했으며, 이는 최초의 빠스또렐레들이 콜롬비아에 도착한 지 불과 14 개월 만에 이루어졌으며, 이 나라의 초기 성소자들중 하나였습니다. 카르멘은 1969 년 12 월 7 일 보고타에서 입수련 하였고, 1970 년 12 월 8 일 보고타 본원에서 주세피나 코스너 수녀와 함께 총장으로서 처음으로 콜롬비아를 방문한 마드레 첼리나 오르시니 수녀의 손에 첫 서원을 발했습니다.

카르멘 수녀는 2 년간의 유기 서원기를 마치고 베네수엘라 아라우레로 선교사로 파견되었고, 1973 년에 보고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1974 년 수녀님은 쿠쿠타 성 요셉 대성당으로 파견되어 사목 사도직 외에도 면학에도 전념했습니다. 1976 년 12 월 8 일, 수녀님은 보고타 본원에서 종신 서원을 했습니다.

카르멘 수녀, 또는 흔히 '카르멘시타'라고 불렸던 수녀님은 큰 신앙과 사목적 헌신을 지닌 인물로 묘사되며, 단순하고 기쁨이 넘치며 기도를 잘하고 타인의 필요에 민감하고, 성소에 대한 깊은 사랑과 수녀님의 삶의 여정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수녀님은 전체 교회에 호의적이었고 성소자들을 사랑하고 기도했습니다. 수녀님은 전염성 있는 기쁨을 지녔으며, 노래와 바오로 가족안에서 그리고 여러 사도직에서 친목 어린 활동을 사랑했습니다.

카르멘시타 수녀의 선교 정신은 수녀님이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에서 같은 헌신으로 사목하게 이끌었으며, 회계 담당자, 지역통솔, 공동체 원장 등 다른 책임도 맡게 되었습니다. 종신 서원 후 그는 다음의 본당에서 사목사도직을 이어갔습니다: 1977 년 쿠쿠타 – 성 안토니오 파도바 본당; 1980 년 쿠쿠타 – 성 요셉 대성당; 1984 년 오스피노 아파리시온(베네수엘라); 1985 년 바르셀로나(베네수엘라); 1990 년 쿠쿠타 – 정 요셉 대성당; 1991 년 보고타; 1994 년 칼리; 2003 년 보고타; 2004 년 칼리; 2008 년 쿠쿠타 – 디빈 빠스토라 본당.

2010 년 뇌졸중으로 인해 보고타 본원으로 돌아와야 했고, 그곳에서 일정 수준의 이동성을 회복하고 가능한 한 독립적인 삶을 살기 위한 모든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난 15 년 동안 사랑과 헌신으로 카르멘 수녀를 도왔고, 수녀님이 악화된 마지막 날들에도 의료 지원뿐 아니라 영적 돌봄과 형제애도 제공해 주신 모든 수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녀님들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저는 수녀님을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진 빠스토펠라로서 기쁨과 기도, 선교적인 마음으로 수도회와 세상을 위해 고통과 슬픔을 바치는 분으로 항상 기억할 것입니다. 항상 묵주를 손에 들고, 선한 목자와 성모님께 노래를 부르며, 환영하고 사교적이며 성소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입술과 마음에서 흘러나온 기도문인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는 그는 평생 동안 그리고 그의 가장 힘든 빠스카의 순간들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카르멘시타는 관대하고 기도하며 재능 있는 수녀였으며, 수도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수련 동기로서 행복한 순간과 힘든 순간을 함께 나누며, 보고타에 우리 집을 짓게 해달라고 하느님의 섭리를 청하며 먼 거리를 여행했습니다. 항상 수도회의 물질적·영적 성장에 관심을 가졌으며, 근면하고 헌신적이며, 훌륭한 사목 정신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카르멘시타는 따뜻하고 소박한 수녀였으며,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했으며, 가정방문을 하고, 모두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한 본당 신부는

사람들 한가운데 있는 카르멘 수녀를 바라보면서 그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파스토렐레가 사람들 사이에 끼어 가정과 거리를 다니며 환대하고 경청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카르멘 수녀님,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의 자비에 맡기며, 빠스토렐라로서의 당신의 놀라운 삶의 선물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회와 수도회를 위한 거룩한 성소를 전구 해 주시기를 청하며, 당신이 사랑과 헌신적으로 살았던 아메리카 히스파냐 관구의 풍요로운 여정을 위해서 전구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총 장

아민타 사르미엔토 푸엔테스 수녀

2025 년 11 월 23 일, 로마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